

더 깊은 묵상

놀이동산에서 배운 교훈

언젠가 우리 가족이 플로리다 러더데일에 있는 놀이 동산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매표소에 가서 표를 사려 했는데 75센트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12세 이하의 입장료가 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에 12세를 갓 넘긴 큰 아이가 "아빠, 내 나이가 며칠 전에 열둘을 넘겼잖아요.

열두 살이 아직 안되었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미안하다 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는 그날 거짓말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날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전화를 받게 하여 당신이 있는데도 "엄마 안 계세요!"

라고 말하도록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벌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거짓말하게 되면 마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진리를 말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출처 - 성공하는 가정을 위한 10계명 / 아드리안 로저스 (2002/09/06)